

[P3-6]

영양마술을 이용한 남양주시 미취학어린이의 영양교육 사례 연구

김경숙*, 김영희, 장영미
남양주시 보건소, 안양과학기술대학, 남양주시보건소

**A case study of nutri education of preschool children with magic arts in
Namyangju public health center**

Kyoung Sook Kim, Young Hee Kim, Young Mi Jang
Namyangju City Public Health Center, Anyang Technical College, Namyangju City Public Health Center

미취학 아동기는 식습관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이 때 형성된 식습관은 성년기의 건강과 생활 습관병 발병에 영향이 깊어 어릴 때 올바른 식습관형성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많은 보건소에서는 미취학 아동 영양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올바른 식습관, 편식교정 및 비만예방 등 영양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형극, 체험행사, 뮤지컬 등 다양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로 이미지 시대에 부합하는 문화적인 행사도 기획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마술은 길거리 공연, 드라마 방영, 지역사회 단체 공연 등으로 이미 인기 있고, 흥미 있는 분야이며, 애니메이션은 어린이들에게 쉽게 반영되고 집중력을 크게 하는 장점이 있어서 이를 영양교육과 결합하여 무대에 올리게 되었다. 이에 남양주시 보건소에서는 흥미 있는 계몽성이 있는 공연인 '센돌이와 함께 하는 영양마술탐험'이라는 제목으로 2005년 9월 6, 7, 8일 남양주시청 대회의실 (다산홀 400여석)에서 남양주시 관내의 만 5~7세 어린이 2,135명을 대상으로 3일간 6회 공연을 진행하였다. 내용은 '편식예방을 위해 5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먹자'로 식품구성탐을 이용한 영양애니메이션과 영양마술로 구성되었다. 식품구성탐 각 층마다 영양애니메이션과 마술을 테마별로 제작하여 영양소의 기능과 결핍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공연 관람 어린이는 2004년부터 2005년 8월까지 보건소의 영양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선착순 예약 받았다. 설문은 장소와 시간관계로 어린이들에게 직접 설문을 받지 못하고, 공연 관람 직 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85명에게 공연의 흥미도, 아동들의 이해도 및 추후 참여 의향에 대하여 설문하였고 5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공연의 흥미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평균 4.6점이었으나, '매우 재미있었다'고 대답한 교사가 44명(51.8%), '재미있었다'는 34명(40.0%), '보통이다' 6명(7.1%), '재미없다' 0명(0%), '매우 재미없었다'고 대답한 교사는 1명(1.2%)이었다. "아동들의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는 평균 3.8점이었으나, '매우 높다'는 대답이 17명(20.0%), '약간 높다'는 39명(45.9%), '보통이다'는 28명(32.9%), '약간 낮다'는 1명(1.2%)이었다. "추후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평균 4.5점이었으나, '꼭 참여 하겠다'는 대답이 43명(51%),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41명(48%),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1명(1%), '참여하지 않겠다'는 0명(0%)이었다.

소감 및 기타 의견으로 85명 교사의 대답한 내용 중에는, 다양한 매체의 공연으로 유익하고 흥미를 주어 좋았다(25명), 편식을 고치고 좋은 식습관을 갖는 좋은 기회였다(3명), 재미있는 만화와 마술을 접목해서 유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1명), 앞으로 아이들이 골고루 잘 먹을 것 같다(1명)로 나타났다. 그 외 의견으로는 어린이의 행동과 습관이 교정되는 교육도 요청하였다.

많은 선생님들은 마술 공연을 선호하였다. 그러므로 추후 이런 공연이 활성화 되어 미취학 아동들의 집중력과 인지도를 높이는 공연이 계속 개발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식습관과 식행동 개선에 대하여 더 다양하고 계몽성 큰 공연이 개발되고, 더 어린 나이인 3~4세 집단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공연 개발도 필요하겠다. 또한 어린 미취학 어린이의 식습관이 변화되기까지 교육효과를 높이고, 창의적이고 재미있고 다양한 교육법을 개발하는 보건전문 영양사가 각 보건소에 배치되어 창의적인 기획과 진행으로 지속적인 영양교육을 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초를 다져나가기 하리라 사료된다.